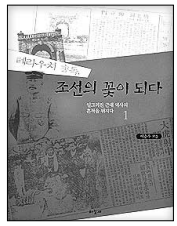


# 山寺 앞마당에 선 석등 원조가 일본 神社라니!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  
이순우 지음 | 하늘재 | 1만3천5백원



**#1** 오늘날 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암 석등. 하지만 그 정체는 일본 나라의 카스가 신사(神社)에서 유래된 '카스가 도로(春日燈籠)'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이 땅에 들어온 이 카스가 석등은 지금도 부지런히 확대 재생산되어 전국의 사찰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다.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석등은 일본 신사에서 유래한 '카스가 도로'다.

**#2** 만원권 지폐 뒷면, 경복궁 경회루 오른쪽에 새겨져 있는 삼층 석탑. 실제로는 경복궁 복원공사 후 그림의 위치에서 사라진 이 석탑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경복궁 주차장 옆 잔디화단으로 옮겨진 '영전사보제존자사리탑(보물 제 358호)'이다. 이 석탑은 강원도 원주 영전사에 있던 것으로 1915년 조선 물산장진회 때 야외전시유물의 하나로 수집돼 오늘에 이른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유물에 얽힌 진실 추적  
상식의 허 찌르는  
역사읽기의 재미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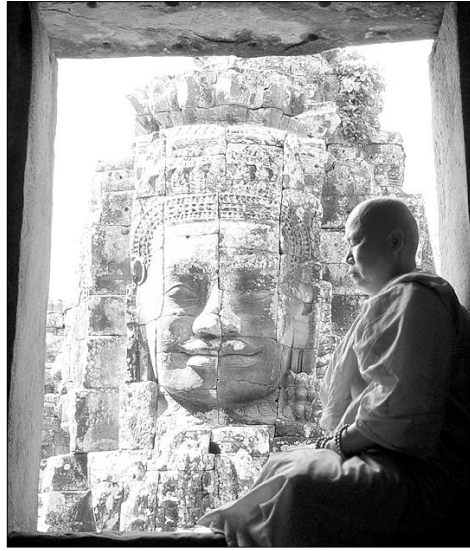
**#3** '조선화관(朝鮮花管)'이라고 불리던 백합과에 속하는 꽃이 있다. 이 꽃의 학명에는 초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이름 '테라우치(terauchi)'가 들어가 있다. 일본의 저명한 식물분류학자인 나카이 다케노시(中井猛之進)이 이 꽃을 발견하고 자기 조사를 후원해 테라우치에게 감사할 표시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유적지와 유물,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추적해 낸 책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가 나왔다. 지은이는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는 책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순우(42) 씨. 15년간 증권계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직장을 박차고 나와 '문화재 사료수집가'이자 '아마추어 문화재 연구가'로 변신했다.

본격적인 문화재 사료 수집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이번 책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빚어진 뒤물린 근대역사의 해묵은 지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 31건을 보여준다. 2권의 <...조사보고서>가 문화재의 이동경위를 추적한 것과는 달리 이번 책에는 문화재 외에도 국회의사당에 세워진 해태상과 조선호텔의 포획 기록, 조선 최초의 여자 비행사 등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상식의 허를 찌르는 역사 읽기의 재미와 함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제야의 타종 행사가 식민지시대 경성방송국의 기획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치욕의 삼전도비가 1980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송파구 삼전동 역사공원에 자리 잡게 됐다는 사실 등을 그가 제시하는 사료를 통해 확인하다 보면 그 조사방법과 집념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도서관 들락거리는 일에 이끌이 났다'는 지은이의 말과 노력이 절절히 느껴진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중에도 애당초 기록의 오류나 근거 없는 풍설의 작용으로 엉뚱한 내용들이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는 사례가 수도무다"는 이 씨는 "이 책을 통해 잘못된 사실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그 의미를 찬찬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앙코르의 미소'라고 불리는 바이온 사원의 석불상 앞에서 좌선하는 헤자 스님.

"남방 불교를 체험한 캄보디아는 내게 부처님 가르침의 참 맛을 느끼게 해준 정신적 고향입니다." 헤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2주 동안 앙코르와트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 캄보디아를 순례했다. 그 곳에서 다양한 인간 상상과 남방불교의 유적을 만났다. 그리고 이 여정과 견문, 감상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바로 <캄보디아>이다.

헤자 스님이 캄보디아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씨엠펙시의 가장 큰 사원인 왓 라지보. 여기서 헤자 스님은 삭발을 하고 이 사원의 썬셋 조실 스님에게서 오렌지색 남방 가사를 수지한다. 40여년전 출가할 때처럼 다시 초심자로 돌아간 헤자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 스님들과 똑같이 새벽에는 탁발을 하고 오후에는 빨리 공부를 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문화유산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앙코르와트의 유적을 둘러보며 직접 발발 복원에 가세하기도 했다. 앙코르와트는 앙코르의 유적지

# 앙코르와트서 14일 수행체험 '초심'을 얻다

캄보디아 선목 헤자 스님 글·사진 | 장문산 | 1만5천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요즘은 유적지 전부를 가리는 고유명사로 굳어져 있다. 이 사원은 12세기 초에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의해 건축된 힌두 사원으로, 훗날 대승 불교의 사원으로 바뀌었다. 유적지 내의 모든 사원들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비해 앙코르와트만 서쪽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장례(葬禮)를 위한 사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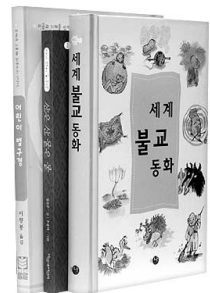
"이 수많은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귀중한 유산을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복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여행에서의 가장 큰 재미와 추억은 그 나라 문화 생활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것. 헤자 스님 역시 왓 라지보 사원 근처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돼 캄보디아 전통 혼례식을 지켜본 일. 20세기 최악의 학살현장인 킬링필드 '쯔쯔아'의 유골탑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을 달래는 천도제 의식을 해준 것, 사원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가했던 경험 등을 이번 순례의 소중한 기억으로 소개했다.

스님에게 이번 순례는 양국이 불교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스님은 이번 순례의 안내를 맡았던 캄보디아 쉐린스님을 상좌로 받아들였다. 또 내년에는 도선사와 왓 라지보 사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 여름방학 자녀와 부처님나라로 떠나요

■새 단장한 어린이 불교동화 3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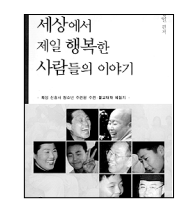


세계불교동화 행산 스님 엮음 | 박기중 그림 | 큰나 | 1만4천원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글 | 우종택 그림 | 파랑새어린이 | 8천5백원  
어린이 법구경 향봉 스님 옮김 | 밀알 | 8천원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교 동화책 세 권이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다. 이번 방학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빠지기 쉬운 자녀와 함께 불교 동화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행산 스님(영산법화사)이 엮은 <세계불교동화>는 1966년 출간됐던 <불교동화집>의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더듬고 그림을 덧붙인 책이다. 우유에 물을 섞어 판 돈으로 귀고리를 산 할머니가 옥실을 버림으로써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할머니와 귀고리', 마음을 좋은 일을 위해 쓸 때 북이 온다는 '사

라진 미술사', 석가탑과 다보탑에 얽힌 전설을 보여주는 '아사달과 아사나' 등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산은 산 물은 물>은 소설가 정찬주 씨가 성철 스님의 일화를 동화로 엮은 <성철 스님과 모과동자>(2001)를 새롭게 단장한 책이다. 주인공 '모과동자'를 통해 성철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와 출가 후의 수행생활 등을 들을 수 있다. <어린이 법구경>은 '불교 교훈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구경>에 실린 432개의 이야기 중 146개를 가려 담은 책이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책을 엮은 향봉 스님이 어린이 법회 때 들려주기 위해 틈틈이 만들어 둔 이야기거리를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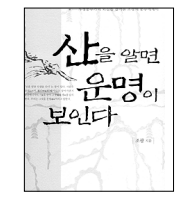
## 새로운 책



■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성일 스님 엮음, 불광출판사, 9천5백원) = "부처님의 팔다혜예요. 어제 수계식을 해서 분홍색 팔찌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기분을 잊지 못하겠어요.(수원 세류초등 4년 이다혜)" 경기도 화성군 신홍사·청소년수련원장 성일 스님이 30여 년에 걸쳐 모은 어린이 불교학교와 청소년·성인 수련대회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책으로 엮었다. 수련회 참가자들의 솔직한 수련회 소감문을 읽다보면 책 제목처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다시 읽는 우리 수필>(김종완 엮음, 을유문화사, 9천8백원) = "법정 스님의 수필은 종교적이거나 사색적인 수필의 전범을 보여주고 박연구는 신변잡사의 일상적 사건이 문학화 사건으로 신비롭게 변신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수필과 비평> 주간인 김종완 씨가 법정 스님과 박연구, 전혜린, 유병석, 손광성, 박완서의 수필 중 45편을 가려 담고 작가문을 덧붙인 수필평론집.



■ <산은 알면 운명이 보인다>(조광 지음, 바보새, 1만원) = 자생풍수가 조판 씨가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지리학을 소개한 '풍수예세이'. 지은이는 "풍수란 미신이나 신비학 학문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모색하는 자연과학"이라고 말한다. 책 말미에는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관심을 받고 있는 '풍수엔지니어'에 대한 설명을 실었다.

##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하룻밤에 읽는 불교       | 소은 스님   | 랜덤하우스중앙 |
| 2  |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 형화 스님   | 이문아침    |
| 3  | 홀로 사는 즐거움        | 법정 스님   | 샘터      |
| 4  | 스님이 이야기          | 지록 스님 외 | 여시아문    |
| 5  | 가장 행복한 공부        | 형화 스님   | 시공사     |
| 6  | 백일법문             | 성철 스님   | 장경각     |
| 7  | 참회·장회기도법         | 김현준     | 효경림     |
| 8  |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 이웅범     | 수희재     |
| 9  | 불교가 좋다           | 가이이     | 동아시아    |
| 10 | 육조혜능평전           | 이은운     | 동아시아    |

도서 안내: (02)737-0695

전등록 전30권을 5천원으로 완간!  
전간사서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바로보인 전등록>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 "즐거운 문화읽기" 등 20여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키농과 스과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이라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강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지않고 쉼없이 일하기!  
수치심을 벗어나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기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마음 명상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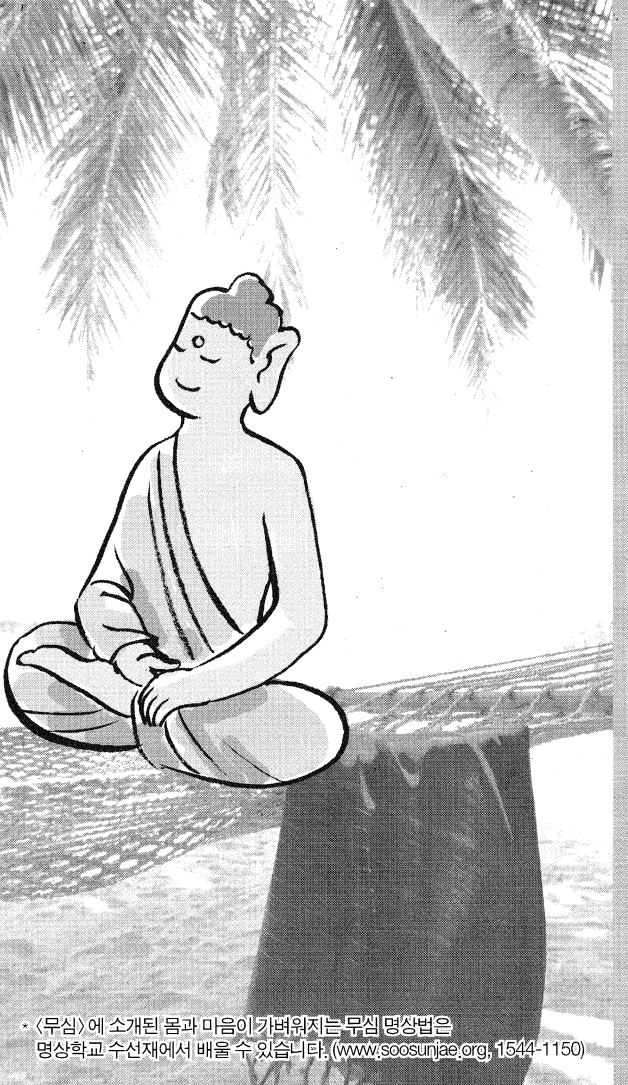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무도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재'에서 벌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책 이름: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자: 문화영  
가격: 9,000원

독립수선재  
서울시 중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무심)에 소개된 명상마을이 개별회지는 독립명상법 명상학교 수선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www.soosunjae.org, 1544-1150)